

‘금리 인상기’ 보험사, 자산운용 ‘기대반’ 건전성 ‘우려반’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인상 전망
운용자산 수익증가·투자손익 기대
채권 평가이익 감소, RBC비율도 ↓



기준금리가 1.0%로 오른 데 이어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되자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유투이미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운용률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여기에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금리인상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이다”라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히 마이너스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실상 오는 1~2월 중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채권금리 상승에 자산운용률 기대감도 ↑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대부분 안도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사의 순이익이 늘어나면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되면

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의 수익 증가와 투자 손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사들의 주요 투자처인 채권 수익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손해 보험사보다 고금리 상품 비중이 커 기대감이 더 높은 모습이다.

자연히 생보사들의 역마진 우려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고객들에게 받은 돈으로 굴린 수익률이 고객에게 주기로 약정한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보통 금융사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은행은 예대금리가 높아지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가지고 채권 투자를 하는데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운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RBC비율 관리 ‘빨간불’

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보험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 평가이익이

떨어지며 RBC비율도 자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RBC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때문에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 등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260.9%로 전 분기와 비교해 5%P 올랐다.

다만 내년 중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만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이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우리금융, 민영화 첫 행보... ‘MZ 특화 플랫폼’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조건 확인하세요”

새로운 시스템 기반 테크기업체
MZ세대 직원 중심 TFT도 구성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가운데)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사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경영진과 MZ세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MZ특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완전 민영화에 사실상 성공한 이후 손태승 회장의 첫 행보로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꺼내든 것이다.

‘MZ특화 플랫폼’은 기존의 금융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문화에 기반한 테크기업체(Tech Company)로 육성될 방침이다.

이번에 구축할 플랫폼은 최근 MZ세대들이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증권 부문 확대 계획과도 연계해 투자지원에 특화된 웰스테크(Wealth-Tech) 플랫폼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추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개인화에 기반해 MZ세대가 ▲언제 ▲어디서나 ▲제일먼저 ▲재미있고 ▲편리한

일상 ▲생활 솔루션 등 서비스를 Seamless)하게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MZ세대 직원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도 구성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안, 시합할 뿐만 아니라, AI블록체인UX/UI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그룹사가 참여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

드를 조성해 핀테크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자본투자, 합작법인(JV) 등 네트워크 기반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030년 생산연령 인구의 60%를 MZ세대가 차지하는 만큼 우리금융그룹의 미래는 MZ세대 고객에 달려 있다”며 “2021년 완전 민영화 성공을 토대로 우리금융만의 새로운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금감원 Q&A

Q. 최근 거래 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가 가산되는 특판 예·적금을 추천받았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괜찮은 상품으로 생각해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대금리가 가산되는 주요 은행 특판 예·적금 상품의 판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금리가 가산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대금리는 큰 글씨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우대금리 지급조건 등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구직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대금리를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질혜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특판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백지연 기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가까운 ATM 확인

금융위, 소비자 편의성 개선

앞으로는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APP)을 통해 가까운 은행지점 ATM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럽게 은행지점이 폐쇄되거나 ATM위치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개시한

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은 ATM과 지점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모바일현금카드 앱은 ATM 정보만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맵은 위치정보 외에도 제공 서비스, 수수료, 폐쇄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예컨대 휠체어를 타고 방문해야 할 경우 해당기능이 탑재된 가까운 ATM을 찾을 수 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지점의 폐쇄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국민의 지점·ATM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권은 효율적인 지점과 ATM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금융대동여지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銀 건어물시장 ‘희망디자인’ 재능기부

간판·BI 리모델링

IBK기업은행은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부산 남포동 건어물시장 입구와 110여개 점포의 외관 디자인을 특색있게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IBK희망디자인’은 2016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BI를 무료로 디자인해 교체해주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개별 점포에서 시작해 골목 상권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제각각이었던 노후 간판을 일관되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차양막과 진열대 커버는 밝은 패턴과 색감으로 리모델링했다. 새벽에도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모



부산 남포동 건어물시장 입구. /IBK기업은행

든 간판에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생기 넘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IBK희망디자인’ 최초로 시장 입구 개선공사도 진행했다. 건어물시장을 돋보이게 할 새로운 B.I(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해 주목성을 높였다. /이승용 기자